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천태종신원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판> 권집지 •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남 목 마를때 물 떠줄 수 있어야 道

15면에서 계속

서 나오기에 실재가 없으니 그것을 붙들지 말고 근본에 놓으면 없어진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붙들고 있기에 그것이 인(因)이 돼서 업(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또 병을 캐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죠? 그러나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캐버릴 수 있는 마음이라면 아마 이 몸을 던지 않고도 한평생에 다른 세상에 갈 것을 미리 미련해 놓고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수억 겁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의식이라는 습을 한평생에 그냥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일도 많은 말도 붙지 않는 자유로운 법을 진정 중독하기 바랍니다.

생활의 방향을 일러 주십시오

문 저는 정신병원에 몇 번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몸이 안 좋다 보니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인공을 알고 들어가다가 두려운 느낌이 들면 되돌아 서 버렸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의 방향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모두 각자에게 있는 그것은 누가 갖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빼앗아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지어놓은 것들은 오직 나의 근본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말합니다. 얽히고 설키서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내의 사랑과 지식으로 풀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물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녹여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공부'를 해라. 다가오는 모든 것을 근본에 믿고 맡겨라. 그리고 한번 맡겼으면 의심을 하지 않아야 정말 해결이 된다.' 하고 그렇게 풀이 없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고 맡길 곳은 한 곳. 자기 근본 주인공밖에 없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하더라도 주인공을 붙들고 울고, 내 삶이 서럽고 비참해서 눈물 흘릴 때도 주인공을 부여 잡고 우세요. 그 길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녹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세요. 학생이 지극하게 주인공을 붙 안이게 일념으로 찾는다면 인생의 길을 굳이 찾아서 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거니까 지극하게 믿고 실천을 하기 바랍니다.

바쁜 생활 속 수행하는 방법

문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심자입니다.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일요일마다 법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시간 날 때 팜팜이 불교관련 서적을 보고 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문자에 얽매면 국 맛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책보다 수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지켜야 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여놓았잖아요? '주'라고 해도 됩니다. 자부처라고 해도 되고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함나라고 해도 되고 이름들이 다 가리키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내 마음의 부처.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주인공' 당신

이 모든 걸 다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오관을 통해서 나쁜 거 좋은 거 가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 하고 항상 그렇게 관(觀)하게 된다면 언제나 불성이라는 그 근본과 둘 아나게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들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주처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기사일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항상 차를 타고 가면서도 테이프

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몸 속에 수많은 내 자생중생들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걸어다니는 게 없노라고 말입니다. 혼자 보는 것도, 혼자 듣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색을 게 어디 하나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영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즉 50% 반쪽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에도 무척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죠. 밥을 지을 때 밥통의 소

**"당신만이 당신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당신만이 당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잠자기전 주인공에 놓는 공부하세요**

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든 항상 그 주인공이라는 주처는 놓치지 않았대요.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것도 당신이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주인공 당신이잖아.' 하고 말합니다. 그러다 근 몇 개월이 지나가니까 어느 날 알아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할 때는 자신의 주인공을 항상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는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모아서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케트를 끼워도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않아서 밥을 못 짓듯이, 우리 마음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화하게 만들어야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들어와서 항상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재물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자라고 하고 안테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재물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켓트가 맞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와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통이름을 이루고 있는 자생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

모든 것을 안으로 믿고 놓을때 물리 터져

업이 두터워 녹이기 어려워요

문 예전에 한 스승을 만나 수행을 했던 수행자입니다. 그 분도 큰스님처럼 내 안의 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간이란 무한한 존재이며 무명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보고 숨기를 없애라고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분과 함께 큰스님 법회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분과 헤어질 후 여러가지 괴담으로 힘들어서 선원에 가끔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제가 좋지 않은 업이 너무 두터워 자기 힘으로는 다 지우기 힘들니 깨달으신 참 스승을 만나 어둠의 막을 자우도록 하라고 일러주고는 떠나셨습니다. 큰스님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글 올립니다.

답 우리가 도반으로서 같이 이런 묘법을 공부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마음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세세생생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잘 아시려고 합니다. 생각하면 걸어진 발자취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것이 듣는 것도 혼자 아니고 먹는 것도 혼자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더불어 들어가는 이치죠. 그러기 때문에 사랑 모두 합해서 평등 공평이라고 하는데, 모두 합해서 백이다 공이다 하는 것은 지금 말하듯이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사님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걸어다니시지만 내가 걸어다니는다고 내색을 게 없

다. 그 믿음,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지요.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서 뽕이면 나무의 속이 비듯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살아 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않으면 알을 깨서 생산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근본으로 향한 마음에는 습도 업도 불을 사기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작업을 꾸준히 하셔서 참나를 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인 까닭

문 명상을 즐겨하며 그런 종류의 서적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명상 서적을 읽다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그것은 최고의 진리인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분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지 않으나 실습입니다. 사람이 저마다 너와 나가 들어와서 하나임을 깨달을 때 모든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해꼬지 할 미련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며 진정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나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공생(共生)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통이 속에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통이에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부터 공생인 줄을 알아



그림 · 최주현

테 삼배를 올리는 거다. 어떠한 형제를 놓고 상대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법당도 짓고 부처님도 모셔놓고 그런다는 걸 아시고 진리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만사가 본래 둘이 아니기에 이론으로서가 아닌 실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대로 묵묵하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대장부의 결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저 없는 도리

문 큰스님, 저는 옴마니반메홀이란 주문을 들고 3개월 가량 매달린 끝에 갑자기 눈앞의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눈이 열려 천지 만물이 다 나와 한 몸이란 것을 똑똑히 보았으며 죽는 것도 없고 삶 또한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가 로동이 법음을 토하고 불이 법음을 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알려주실까말로 나아가는데 일체의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스님, 하나마저 없는 것은 무엇이며 다시 하나에서 나왔을 때는 어떠한지요?

답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불교라고 하는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 말없이 하는 말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가고 오는 것이 없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나온 걸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남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하고 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생활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니라' 하고 내 자생부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सूक्ष्म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सूक्ष्म하게 말고 그냥 그것도 되어 되는 법이죠. 한 계단 디디면 한 계단이 되죠? 누가 한 계단을 디고서 그 계단 하나 디딜 때 좋았다고 해서 그 계단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다 물리겠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말씀해서,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견성이 아니라 했어요. 내 몸통이 있으면서 오싹이 있는 거거든요. 이 오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게 알아지고 그 눈집도 마저 봐야, 얼른 쉽게 말하지만 이 모든 이 세상 공기중에서 탁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자유권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 그냥 높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걸 그렇게 봤으니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 하늘에, 온갖 같은 하늘에 구멍이 뚫리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보지도 않고 걸 수도 없는 그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리는 땅 속도 물 속도, 아무리 온산화력이라도 그걸 뚫지 않고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냥 물리죠.

그때서 물 속 깊어도 알고요. 모두 알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왕래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도리는 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남이 목마를 때 목 안 마르게 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했어요. 그러나 뭐가 나오든지 알아듣지, 모두 마음에서 관(觀)하고서 어떠한 거든지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모든 용도를 다 거가다 놓고 가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군요. 내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매끼예요. 공부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산에를 갔어요. 산소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전에도 말했죠. 그런데 속에 나, 주인공이 말입니다. '너 저기 두 묘지가 있는데 한 묘지는 아버지 묘지고, 한 묘지는 아들의 묘지니라.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면 아들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우리는 체가 없으니까 아들한테 가도 아들 하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도 아버지 하나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 없으면서 함이 없이 한다. 그 하나도 이름 내세울 게 없다. 하는 뜻을 잘 새기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연둑을 남듯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쪽
값 6,000원
이서아문